

에레무르스



중앙아시아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에레무르스는 척박한 환경에서 혼자서 자라나는 특성 때문에 **고독**과 **독립**의 상징하는 꽃입니다.

기도의 염원을 담은 기다란 꽃탑를 지니고 있어 높은 목표와 열망을 상징합니다.

여우꼬리 라일락이라고 불리우며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매년 피어나는데, 이는 재생과 부활의 의미합니다. 정원이나 공원의 중심 장식물로 자주 사용하며, 꽃꽂이나 플로럴 디자인에 자주 사용됩니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며 서아시아와 동유럽에서도 발견됩니다.

에레무르스는 최대 3m까지 자라는 긴 꽃대를 지녔습니다. 에레무르스의 꽃은 스파이크 형태를 띠며, 봄에서 여름초에 꽃을 피웁니다.

키가 크고 고풍스러운 외모 덕분에 에레무르스는 특별한 사람이나 상황을 상징하는 고유함과 희귀함을 의미합니다.

에레무르스의 꽃말은 고독과 인내입니다.

척박하고 고립된 고산지대의 환경에서 홀로 자라는 모습으로 고독을 상징합니다.

기다란 꽃대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라는 특성 덕분에 인내를 의미합니다.

에레무르스의 독특한 형태와 모양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회화나 조각, 사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 에레무르스를 약용 식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뿌리는 기침이나 상처의 치유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에레무르스에는 항바이러스 효과와 피부를 보호해 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주며, 피부의 진정과 항염효과, 항산화효과로 피부를 밝게 해줍니다.

에레무르스의 뿌리는 천연접착제로서 늦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수확합니다. 수확 후에 깨끗이 세척을 한 후, 뿌리를 자르고 건조시키고, 잘게 가루로 만듭니다. 이 가루를 물에 섞어서 저온에서 서

서히 가열해서 점액질을 추출합니다. 이를 추출하고 냉각시켜서 농축시키면 접착제로 활용합니다.

에레무르스의 접착제는 식물 공예나 종이 공예, 포장지, 제책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방수성이 뛰어나서 건축용 목재나 가구의 방수코팅제로 사용됩니다.



에레무르스는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를 선택해 줍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모래질 혹은 자갈이 섞인 흙으로 조성합니다.

에레무르스는 첫눈이 오기 전인 가을이 심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구근을 심을 때에는 약 10~15cm 깊이에 심고, 구근 사이의 간격은 약 30~60cm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처음에 심고 나서는 촉촉해 지도록 물을 충분히 줍니다. 성장할 동안에는 과도한 관수는 피해 주며, 토양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가뭄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물빠짐이 잘 되도록 확인해 줍니다.

에레무르스의 구근은 문어의 촉수처럼 생겼으며, 크기가 매우 큼니다. 추운겨울에는 멀칭(지표 덮개)으로 뿌리를 보호해 줍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구근이 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가을에 구근을 분리해서 다시 심어줍니다.